

길어지는 기아차 가동중단에 협력업체 속탄다

모듈 납품 특성상 완성차업체 휴업하면 하청업체도 휴무

소규모 업체들 직격탄... "사태 길어지면 연쇄도산 우려"

기아차 광주공장의 가동중단이 당초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협력업체들의 속이 타들고 있다.

여러 부품을 조립한 모듈형태로 부품을 납품하는 자동차업계 특성상 완성차업체가 가동을 중단하면 그에 맞춰 협력업체들 역시 생산을 멈춰야 하고, 기아차 광주공장의 셋다운 장기화는 하청업체의 연쇄도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11일 오전 광주 광산구 하남산단에서 만난 기아차의 1차 협력업체 관계자는 긴 한숨부터 내쉬었다.

차체부품을 생산하는 이 회사는 기아차 광주공장이 10일부터 생산을 멈추면서 이에 맞춰 생산라인 가동을 중단하고 전 직원 휴무를 진행했다.

11일에는 전체 생산라인의 4분의 1 정도만 돌리고 있고, 이같은 상황은 12일과 13일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 회사에는 자체 협력업체 직원 등을 포함해 모두 270여명이 근무하고 있다. 완전 휴업도 아니고 일부 생산라인만 돌려야 하는 상황이라 직원들은 모두 출근했지만 대부분 생산라인은 돌리지 못하고 있다.

이 회사 한 임원은 "원자재는 공장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 녹슬고 있고 생산라인은 정상적으로 돌리지 못하다보니 고정 인건비는 그대로 나가면서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하남산단 내 또다른 기아차 협력업체의 공장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인근 공장 관계자는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인데 오늘까지 이틀째 공장을 돌리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일정 규모를 갖추고 있는 1차 협력업체의 경우 어느 정도 견뎌낼 여력이 있지만 단순 부품을 생산해 납품하는 2,3차 협력업체는

이번 가동중단 사태에 직격탄을 맞고 있다.

업체 한 관계자는 "하루 벌이 하루 먹고 산다고 할 정도로 규모가 작은 업체들이 많아 기아차의 가동중단이 길어지면서 상당수가 쓰러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중소 업체는 한번 쓰러지면 더 이상 재기할 힘이 없다"며 "가동중단 사태가 조속히 마무리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자동차에 들어가는 전선 봉치인 '와이어링 하니스'의 중국에서 생산이 차질을 빚으면서 기아차 광주공장은 군수라인을 제외한 나머지 생산라인은 10일과 11일 이틀 동안 휴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간의 휴업 뒤 소형 SUV '셀투스'와 쏘울을 생산하는 1공장과 3공장 하남 대형버스 라인도 12일부터 정상가동한다.

하지만 스포티지와 쏘울을 생산



지난 10일 오전 광주 서구 기아차 광주공장 1공장의 남문 출입구가 굳게 닫혀 있다. 기아차는 이날 중국에서 생산하는 부품 수급 차질로 휴업에 들어갔다.

하는 2공장은 13일까지 휴무한 뒤 14일부터 정상가동에 들어갈 방침이며, 3공장 봉고트럭 생산라인은 14일까지 휴무하고 14일 이후 가동여부는 추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봉고트럭 생산라인의 경우 지난 4일부터 감산을 진행해 온 데 이어 전면 가동중단사태까지 길어지면서 협력업체들의 어려움을 더욱 가

중시키고 있다.

기아차 광주공장의 하루 완성차 생산량은 평균 2100대에 이른다.

하남산단관리공단 관계자는 "기아차의 1,2차 협력업체는 광주에만 250여곳에 이른다"며 "기아차의 가동중단 사태가 길어지면 이들 중소기업의 어려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기생충이 코로나이겼다”...특별상영 ‘복적복적’ 짜짜구리·카스 제조명

탕 비었던 영화관에 다시 온기...후백판도 흥행 기대

‘기생충’이 아카데미 4관왕에 오르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확산으로 악화일로로 치달던 관련 산업들도 모처럼 활기를 띠는 모습이다.

기생충 투자·배급사인 CJ를 비롯한 영화·문화 산업계는 각종 특별행사를 실시하며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CJ그룹 계열사인 CGV를 비롯해,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주요 멀티플렉스 영화관들은 ‘기생충 특별전’을 시작한다.

CGV는 오는 25일까지 서울 13곳, 경기 5곳, 부산·울산 5곳 등 총 32개 영화관에서 기생충을 다시 상영한다. 롯데시네마도 같은 기간

전국 30개 영화관에서 재상영한다. CGV와 롯데시네마 모두 특별전 기간 동안 할인된 가격(7000원)으로 영화 예매가 가능하다.

특히 26일 개봉되는 기생충 ‘흑백판’도 전국 영화관에서 상영된다. 영화업계 관계자들은 재상영하는 기존 오리지날판은 물론 흑백판을 통해 신작을 뛰어 넘는 ‘흥행 대박’으로 위기에 빠진 영화산업에 활력을 다시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영화관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곳 중 하나로 지목된다. 확진자 중 적지 않은 수가 영화관을 다녀간 것으로 확인됐고 밀폐된 영화관의 공간적 특성상 대중들의 공포심이 큰 탓이

다. ‘기생충 열풍’은 이같은 우려를 잠재우는 모양새다. 일부에서는 ‘기생충이 코로나를 잡아 먹었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다. 실제 11일 오전 주요 영화 예매사이트를 보면 주요 상영관에선 늦은 오후까지 빈자리가 얼마 남지 않았을 정도로 높은 예매율을 보이고 있다.

BTV(SK), 올레TV(KT), LG U플러스 TV 등 3대 통신사 계열이 운영하는 IPTV 등 VOD 업계도 기생충 4관왕 기념 프로모션에 열쇠 돌렸다.

BTV는 23일까지 1800원의 할인된 가격으로 기생충 VOD를 제공하는 것과 함께, 기생충 VOD를 구매한 고객 중 100명을 추첨해 기생충 각본집과 스토리보드북 세트

양한 언어로 조리법을 소개하기로 했다

를 경품으로 지급한다. 올레TV는 1800원, LG U플러스TV는 1750원에 기생충 VOD를 구매할 수 있다.

WAVE 등 모바일 VOD 애플리케이션 등에서 ‘기생충, 세계를 매혹하다’ 등 관련 다큐멘터리 작품을 발빠르게 선보이기도 했다.

식품 업계도 모처럼 반색하는 분위기다. 특히 ‘짜짜구리(짜짜게티+너구리)’, ‘카스’ 맥주 등 영화 속 등장하는 라면·주류 업체는 기생충의 오스카상 수상을 마치 ‘자기 일’처럼 기뻐하며 대대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

농심은 이날 화제가 되고 있는 짜짜구리 조리법을 11개 언어로 소개하는 영상과 유튜브에 올렸다. 농심은 기생충 아카데미 수상과 함께 짜짜구리가 관심을 받으면서 다

남학생 중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입사지원 할 것이라 답한 응답자가 각 14.4%의 응답률로 가장 많았고 ‘CJ제일제당(10.3%)’, ‘LG전자(9.8%)’와 ‘한국전력공사(9.8%)’가 뒤를 이었다. 여학생 중에는 ‘카카오’에 지원하겠다는 응답자가 24.0%로 가장 많았다. 이어 S네이버(13.5%) △CJ제일제당(11.7%) △아모레퍼시픽(10.8%) △신세계(9.2%) 등 순이었다.

전공계열별로는 살피보면 경성계열 전공자 중에는 ‘삼성전자’에 입사지원 할 것이라고 답한 취업생이 13.0%로 가장 많았다. 이공계열 전공자 중에는 ‘SK하이닉스’를 꼽은 취업생이 21.5%로 가장 많았고, 삼성전자(17.4%)가 뒤를 이었다. 인문계열 전공자 중에는 ‘CJ제일제당(13.4%)’과 ‘카카오(13.4%)’를 가장 선호했다. 사회과학계열과 예체능계열 전공자 중에도 카카오편을 1위로 꼽은 응답자가 각 24.3%, 35.7%로 가장 많았다.

신입직 구직자가 대기업 취업을 준비하는 이유 중에는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가장 높았다. 조사결과 ‘복지제도가 잘 되어 있어 워라밸을 이룰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58.4%로 가장 높았고, ‘높은 연봉을 받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57.4%)이라는 답변이 뒤를 이었다.

뉴스

금호타이어, 獨 ‘iF 디자인 어워드’ 본상



마제스티9(왼쪽)과 윈터크래프트 W51.

금호타이어가 독일 iF 디자인 어워드 2020° 운송기기 부문에서 2개 제품이 본상을 수상했다고 11일 밝혔다.

iF 디자인 어워드는 독일의 인터 내셔널 포럼 디자인(International Forum Design)이 주관하는 국제 디자인상으로 디자인 분야의 아카데미상으로 불린다. 올해 67번째로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IDEA 디자인 어워드와 함께 세계 3대 디자인상에 포함된다. 수상작들은 디자인은 물론 혁신성, 환경 친화성, 완성도, 기능성, 편리성 등의 종합 평가를 거쳐 결정된다.

올해 금호타이어는 2개 제품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대상 제품은 프리미엄 세단을 위한 고성능 타이어인 ‘마제스티(Majesty) 9 타워이앙공은 지난 10일부터 13일까지 광주~제주 노선의 편도 항공요금을 7400원부터 책정했다.

의 후속 제품으로 기존 제품 대비 승차감과 정숙성을 강화시킨 고성능 프리미엄 제품이다. 해당 제품은 마모성능과 눈길제동력 또한 개선해 안전내구성을 향상시켰으며, 최적의 패턴 블록 배열 및 ‘사운드 하모니 테크놀로지’ 기술을 적용해 소음을 감소시켰다.

또 사이드월(타이어 옆면)에는 빛의 각도에 따라 외양이 달라지는 홀로그ラム 데코레이션을 넣었고, 트레드(타이어 접지면)에는 규칙적인 기하학 패턴과 모던한 곡선 디자인을 조화시킨 세련된 디자인을 구현했다.

윈터크래프트 Wi51°은 유럽형 겨울용 타이어로 눈길과 결빙된 도로에서 탁월한 성능을 발휘한다. 최신 컴파운드 기술을 통해 눈길과 결빙된 도로에서 견인력과 제동 성능을 개선했다.

또 유럽시장 트렌드를 반영해 최적화된 방향성 패턴디자인과 함께 아이스앤스노우(ice&snow) 성능 향상을 위해 새로운 구조 설계가 적용됐다. 고속 주행중에 안전성을 고려해 고강성 센터리브 디자인이 적용됐고 새로운 구조 설계에 의해 중심부 접지길이가 폭이 개선된 게 특징이다.

정일택 금호타이어 연구개발본부 전무는 “이번 수상은 금호타이어의 디자인 철학과 혁신적인 기술력을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우수한 성능을 갖추도록 노력 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에 무급휴직까지...금호고속 이용객 얼마나 줄었길래

주말 이용객 2만2000명 →5700명 급감



국내 최대 규모 고속버스 업체인 금호고속이 사무직 직원들을 대상으로 단기 희망무급휴직에 들어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여행심리가 위축돼 버스 이용객이 줄고, 전세버스 예약 취소가 늘어남에 따라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라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운송업계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하길래 무급휴직까지 실시하게 된 걸까?

광주 종합버스터미널인 유·스퀘어에서 출발하는 고속버스 이용객 수를 집계한 결과 토요일인 지난 1일 7400여명이었지만

주중인 수요일과 목요일인 5일과 6일은 절반 수준인 3800명선으로 급감했다.

주말인 지난 8일 이용객도 1주일 전 수준으로 회복되지 못하면서 5700명선에 그쳤다.

신종 코로나가 확산되기 이전인 지난 1월 첫 주말 유·스퀘어에서 출발하는 주말 고속버스 평균 이용객은 2만2000명 수준이었다.

유·스퀘어에서 전남 사군 등지를 연결하는 직행버스 이용객 역시 신종 코로나의 직접적인 여파를 받고 있다.

주말 기준으로 지난 1일 직행버스 이용객은 1만1000여명이었

지만 1주일 뒤인 지난 8일 이용객은 평일수준인 7300명 선에 머물렀다.

금호고속은 신종 코로나 감염증 확산으로 여행심리가 위축되면서 버스 이용객이 크게 줄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각종 단체여행 역시 줄지어 취소되면서 금호고속이 운영하는 전세버스 역시 사실상 휴업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호고속 관계자는 11일 “이번 무급휴직은 비용절감을 위해 필요한 선택”이라며 “효율적인 인력운용을 통해 경영위기를 극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금호고속은 4월까지 사무직을 대상으로 단기 무급휴직을 받기로 했으며, 휴직 기간은 5일에서 30일 이내에서 본인이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승무원과 기술사원 대상으로 장기 연차 사용을 적극 권장해 휴식이 필요한 직원들에게 재충전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게 했다.

운송업계의 이같은 어려움은 점진 한 기 가격수준으로 하락한 광주~제주 항공료에서도 잘 나타난다.

신종 코로나 감염증 확산으로 티웨이항공은 지난 10일부터 13일까지 광주~제주 노선의 편도 항공요금을 7400원부터 책정했다.